



소송 기자회견장에 나온 일제 징용 피해자들. 왼쪽부터 주영봉 배상청구 한인연합회장, 황정기, 안성균, 권오현, 정재원씨. <이승관 기자>

징용피해 한인 8명 일본회사 집단제소

3·1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피해 배상 소송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권오현(81), 황정기(79), 안성균(78)씨 등 LA거주 한인 징용피해자 8명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와 미쓰이를 상대로 피해배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중 4번째로 독일 나치 전범 피해배상소송에 참가한 배리 피셔 변호사와 신혜원, 한태호, 김기준, 김태희 변호사 등이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피셔 변호사는 이날 소장제출 후 LA한인타운에서 가진 기자

경기지표 '곤두박질'

소비자신뢰·새집판매 수년래 최저

나스닥 4.3% 폭락

미 경제가 아직 수치상으로는 불경기로 접어들지는 않았으나 많은 소비자들이 불경기라고 느낄 정도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는 경제 지수들이 27일 박폭되면서 뉴욕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 하락은 94년1월 23.8% 폭락한 후 가장 큰 폭으로 당초 많은 전문가들은 5.4% 하락을 예상해 왔다. 또 공장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에 6% 하락해 99년 6월 후 가장 낮은 수